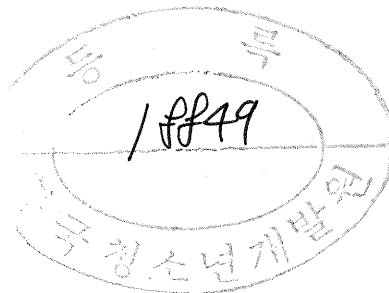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손 승 영 /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전공)



한국청소년개발원



- 「ISSUE PAPER」는 국내외 청소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전문 연구서로서 한국청소년개발원 내외 전문가들의 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본 서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인용시에는 출처 및 저자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정보학술센터
Tel (02)2188-8844, www.youthnet.re.kr

〈요 약〉

한국사회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글로벌 문화가 급속히 도입됨에 따라, 청소년의 삶이나 가치관이 과거와 다르게 점차 이질화 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이질화 현상은 주로 연령집단, 성, 계층 차이에 의해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남녀 차이인 젠더(gender)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소년간의 이질화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젠더 차이가 여자청소년에 대한 성차별로 연결된 현상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측면과 교육, 가치관,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차이, 생활양식, 일탈행위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 부분 비가시적인 형태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노동시장, 여가에 있어서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자청소년이 경험하는 피해상은 무엇인지를 덧붙임으로서 포괄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여자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성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쉽게 파묻혀버리는 실정을 감안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가출 대책, 미혼모 대책, 노동시장 대책, 성매매 대책뿐만 아니라 성의 이중규범 완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술하였다.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고 남녀 청소년에게 동등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의 수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방향으로 여자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 론	1
II. 청소년의 특수성과 젠더 차이	3
1.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성별 차이	3
2. 교육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4
3.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5
4.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7
5. 일탈행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9
III. 여자청소년이 경험하는 성차별	11
1. 가정에서의 성차별	11
2.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	12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14
4. 여가에서의 성차별	15
5. 소비 및 상품화 관련 성차별	16
6. 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	18
IV.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20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20
2. 가출에 대한 대책	21
3. 십대 미혼모 대책	22
4. 노동시장 대책	23
5. 성매매 대책	24
6. 성의 이중규범 완화 대책	25
참 고 문 헌	27

표 목 차

〈표 1〉 연령집단별 청소년 인구(2004)	4
〈표 2〉 학교급별 성별 진학률	5
〈표 3〉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2004)	7

I. 서 론

한국사회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글로벌 문화가 급속히 도입됨에 따라, 청소년의 삶이나 가치관이 과거와 다르게 점차 이질화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오고 있다. 이는 후기 산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포스터모던적 성격의 다원화와 이질화 양상이 한국의 청소년에게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이질화 현상은 주로 연령집단, 성, 계층 차이에 의해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적으로 형성된 남녀 차이인 젠더(gender)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소년간의 이질화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젠더 차이가 여자청소년에 대한 성차별로 연결된 현상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청소년 관련 서적이나 논문 중에서 젠더 차이나 성차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각적으로 여자청소년 문제를 정리한 글은 거의 없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s)'을 적용해서 여자청소년이 겪고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거나 성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주목을 하더라도, 대부분 단편적인 주제에 대해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협소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여자청소년들이 처한 특수성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매우 미흡했다.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과 청소년 사이에서의 젠더 차이를 부각시키는 작업은 한국사회에서 여자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숙고하고 성차별에 주목함으로써 구체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성차별과 관련지어 여자청소년들이 겪어온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첫째, 젠더 차이에 입각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들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성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부각시키며,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통계에 의존한 성별 차이제시 차원을 넘어서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고 여자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여자청

소년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젠더 이슈를 부각시키는 장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성차별적 현장과 관련해서 여자청소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청소년의 특수성과 젠더 차이

청소년의 정의나 연령은 법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인구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의는 넓게는 24세 이하까지의 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통계청, 2006a).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0대를 청소년기의 중심으로 간주하며, 10대 중에서도 이른바 1318로 불리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주로 1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십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획일성이나 위계성, 체벌과 시험의 일상적 통제를 경험하는 집단이다(조국남, 2005). 또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10대를 겨냥한 판촉 전략도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소비에 폭넓게 노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젠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측면과 교육, 가치관, 가족관계,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남녀 청소년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성별 차이

2004년 7월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12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589만명이고 여자가 533만명이며 성비는 110.6으로 남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성비 불균형이 심한데, 이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초반에 남아선호가 더 심해서 출산시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표 1〉 연령집단별 청소년 인구(2004)

연령	숫자	구성비	남자	여자	성비
청소년전체	11,218,445	100.00	5,892,480	5,325,965	110.6
9세	702,745	6.26	374,527	328,218	114.1
10-14세	3,410,958	30.40	1,816,184	1,594,774	113.9
15-19세	3,116,530	27.78	1,636,580	1,479,950	110.6
20-24세	3,988,212	35.55	2,065,189	1,923,023	107.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2000년 11월 현재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인구 754만명 중에서 미혼은 727만 1천명(96.4%)이며 유배우 인구는 26만 4천명(3.5%)로 나타났다. 유배우 인구 중 여성이 20만 8천명으로 5만 6천명인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의 남자 8만 3천명, 여자 42만 1천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숫자이다. 젊은이들의 평균 결혼연령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배우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한편, 미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0).

2. 교육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2006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인 6-21세 인구는 10,40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196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 피크에 이른 다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6a). 청소년 연령층에 속한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현상은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80년에는 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남학생에 비해 적은 편이었으나, 2005년에는 99.8%로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년제 일반대학 외에도 전문대학과 교육대학을 합친 대학교 진학률에 있어서도 80% 이상으로 나타나 한국여성의 고등교육 기회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격차를 보인다. 2005년의 경우 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3.3%로 여학생의 80.8%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는 여학생 23.6%, 남학생 22.8%였고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는 여학생 56.7%, 남학생은 59.7%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 학교급별 성별 진학률¹⁾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80	95.8	94.1	84.5	80.8	23.7	22.5
1985	99.2	99.1	90.7	88.2	36.4	34.1
1990	99.8	99.8	95.7	95.0	33.2	32.4
1995	99.9	99.9	98.5	98.4	51.4	49.8
2000	99.9 ³⁾	99.9 ³⁾	99.6	99.6	68.0	65.4
2004	99.9 ³⁾	99.9 ³⁾	99.7	99.7	81.3	79.7
2005	99.9 ³⁾	99.9 ³⁾	99.7	99.8	82.1	80.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Miles(2000)는 청소년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조성에 기반이 되었던 근래의 주요 사회변화 양상을 포스트모던적 분열현상, 위험 사회, 세계화의 3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이 다양한 소비문화와 연계되면서, 사회계층이나 개인들의 집합적 행동양상으로 보다는 개별성을 표현하는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분열현상으로 인해 종래에 파악되던 청소년 삶의 공통적 기반과 응집력이 약화되고 집단적 결속력의 상실로 인한 심

리적 불안과 공허감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소비를 통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기도 하며, 일탈 행동을 시도하기도 한다(최윤진, 2002).

성별 차이는 장래 희망직업에 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81.1%가 자신의 장래 희망직업을 어느 정도 생각하거나 결정해 놓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여자는 88.2%가 이에 해당함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장래 희망직업을 확정해 놓고 있는 경향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2005a). 성별로 구체적인 희망직업을 살펴보면 남자는 의사, 교사, 컴퓨터 관련분야, 공무원, 연구원, 운동선수, 법률분야 순이고 여자는 교사, 의사, 디자인 및 건축, 연예인, 요리사, 자영업, 공무원 관련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녀 모두 교사나 의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에 비해 컴퓨터 관련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연구원, 운동선수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들은 남자보다 디자인 및 건축분야나 연예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이경상, 2005a).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대들의 생활시간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는 여학생보다 약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 봉사활동 등과 같은 보살핌이나 배려의 역할에 할애하는 시간은 여학생보다도 적어서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성역할 분리현상을 청소년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통계청, 2004). 즉, 청소년기의 생활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포스터모던적 시간활용 유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 위주의 과도한 부담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 외 시간에 있어서는 성별분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 (2004)

(단위 : 시간:분)

	10 - 19세			20 - 29세		
	평 일	남	여	평 일	남	여
일	0:13	0:13	0:13	4:28	4:43	4:15
학 습	8:16	8:13	8:19	0:56	1:05	0:47
가 정 관 리	0:08	0:04	0:12	0:46	0:13	1:16
가족보살피기	0:02	0:01	0:02	0:26	0:05	0:46
참여및봉사활동	0:01	0:00	0:01	0:09	0:18	0:01
교제및여가활동	3:23	3:31	3:15	4:43	5:09	4:20
이 동	1:30	1:29	1:31	1:58	2:01	1:55
기 타	0:08	0:08	0:09	0:09	0:08	0:11

자료 :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1-2학년 학생 836명에 대해 노동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절반인 50.1%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인문계에서는 남자청소년의 33.8%와 여자청소년의 33.9%가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있는 반면, 실업계에서는 남자청소년의 58.3%와 여자청소년의 71.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돈벌이 경험에의 참여가 훨씬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문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업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일을 한 경험이 있다(문성호, 2003:92). 다른 조사들에서도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과반수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아르바이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양정호, 2004).

4.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먼저, 친구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친한 사람이 친구라는 응답 비중은 성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74.8%)이 여학생(70.1%)보다 약

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장 친한 사람을 가족 중에서 꼽는 비중은 여학생(25.7%)에게서 남학생(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구 숫자는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지만, 친구와 자주 만나는 빈도 등을 포함한 친밀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김기현, 2006a).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및 우울감은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중학생과 여자중학생간에는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고등학생은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네 집단 가운데 남자중학생이 외로움을 가장 덜 느꼈으며,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여자고등학생이었다. 우울감 또한 여자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2003:55-59). 이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인 고민이 많이 발생하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에게서도 성별에 따른 상이한 고민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청소년들은 가족(35.9%), 대인관계(17.2%), 학업 및 학교부적응(14.7%), 정신건강(8.5%) 문제의 순으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가족(23.4%), 기타상담(23.2%), 학업 및 학교부적응(16.9%), 정신건강(12.3%) 문제의 순으로 상담을 하였다(이희우, 2005).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가족,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더 많은 상담을 하며, 남자청소년은 학업 및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여자에 비해 더 많이 호소한다는 점이다. 즉, 여자청소년은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 인간관계가 주 고민거리인 반면, 남자청소년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더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자청소년들이 가족문제에 대해 더 민감한 점을 반영하듯이, 가출에 있어서도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가출 청소년 13,294명 중 남자 6,195명(46.6%), 여자 7,099명(53.4%)으로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여자청소년이 가출하였다(통계청, 2006a). 더욱이 여자청소년이 가출 후 겪게 되는 위험 및 일탈행동은 남자청소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집을 떠나 쉼터나 일시보호소, 그룹홈, 또는 거리에서 살게 되며, 마약복용, 비행, 폭력, 알콜, 성매매, 학교중퇴 등과 같은 위기에 직

면하게 된다. 결국 가출청소년들은 유해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이현지·박석돈, 2003).

여자청소년들의 가출은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극히 미미한 실정에서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여 성매매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산지역 여자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여학생이 가출을 경험한 이후 유흥업소의 출입은 2배 증가했고, 이성과의 혼숙은 3배가 증가했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후 여관이나 동성 친구의 집, 이성친구와 여관이나 자취방에서 거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출이 성적 비행과 가지는 관련성도 높아졌다(김지영·김기범, 2000).

5. 일탈행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오늘날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강압적 분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고, 일탈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심리적 부담이나 욕구를 비정상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출, 흡연, 음주, 폭력 등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흡연율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으나, 여학생의 흡연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흡연에 관한 자료를 성별과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여학생,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만 해도 남녀 고등학생의 흡연율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나, 2000년대에는 이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통계청, 2006a).

둘째, 청소년의 음주는 학년별 차이가 두드러져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 달에 한두 번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경우,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은 각각 16.4%와 20.3%인 반면, 남자중학생과 여자중학생은 각각 0.7%와 1.9%로서 성별보다는 학년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2003).

셋째, 음란사이트 방문 경험에 있어서도 성별·학년별 차이가 커서 남자중

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중학생 여자고등학생의 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58.3% 이상이 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가 57.5% 이상을 나타내었다.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자고등학생은 86.5%로 가장 높고 여자중학생은 20.8%로 가장 낮았다(도현심, 2003).

넷째, 청소년 폭력관련 조사에서는 남학생의 폭력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이 모두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은 30.3%가 폭력피해 경험이었으며, 여학생은 13.1%만 이에 해당해서 남학생의 폭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폭력가해경험은 남학생이 2.0%, 여학생이 1.0%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폭력 가해경험 또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최덕경·강기정, 2001).

폭력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구타와 폭행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33.6%, 욕설이나 협박 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역시 구타와 폭행이 4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욕설이나 협박 22.2%, 돈이나 물건 빼앗김 19.0%, 따돌림과 놀림 4.8%의 순으로 나타나서 남녀 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폭력피해 이유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건방지다(24.2%), 이유 없이 그냥(17.4%), 약해 보여서(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건방지다는 이유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이유 없이 그냥(17.5%), 돈을 빼앗기 위해(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폭력의 이유를 '건방지다'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찾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최덕경·강기정, 2001).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자청소년은 비행이나 일탈에 있어서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청소년들이 폭력에 더 많이 가담하는 이유는 비행이나 폭력을 남자다움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가정에서 귀가시간을 정해놓는 등 규제를 하고 성별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된다. 비행이나 폭력에 대한 문화적 수용이 성역할 정형화와 맞물려지면서 비행이나 폭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

III. 여자청소년이 경험하는 성차별

한국사회에서 여자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은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상당 부분 비가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학교 공부를 중시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자청소년들의 경험은 주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커다란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범죄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일시적 관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해 가정, 학교, 노동시장, 여가, 폭력 각 부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1. 가정에서의 성차별

한국 가족에서 여아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소년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출생 시 성비가 매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10세부터 19세까지의 십대 청소년은 각 연령층에서 모두 여자 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수가 1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비가 불균형하다(통계청, 2006a). 이들은 한국 가족에서 평균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둘 낳기 규범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남아선호로 인해 아들 낳기에 주력하던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남아를 우선시 하는 성차별적 분위기의 가족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성역할에 준해 교육받으면서 자라난 세대이다. 딸들은 여자답게 자라도록 가정에서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저녁 시간의 외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해 통금이 적용되기도 하며, 집안일을 돕도록 요구되는 경향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족관계에 더 민감하며 가족에 대한 기대치가 강하므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억압적인 가족환경에 대해서는 반발하게 된다. 그 결과, 가족관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여자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의 강

한 규제나 억압 또는 학대에 대한 저항으로 가출을 결정하게 되는 경향성 또한 남자청소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유형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 받는 잦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탈출형'의 경우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무관심, 방임, 차별, 유기 등으로 인해 가출을 선택하게 된 '추방형'이 37.4%로 이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흔히 통념에 준해서 가출청소년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없이 다만 쾌락 추구를 위해서나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추구형'은 단지 22.6%에 해당했다(남미애, 1999:40).

가출은 여자청소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부모의 불화나 이혼,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학대, 빈곤 등이 자녀를 방황하게 하고 비행에 빠지게도 만든다(Hetherington, 1989; Janus, 1987). 가족 기능의 약화가 여자청소년의 가출을 조장하고, 가출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수단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십대들은 성매매에 빠져들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에게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족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가족에서의 성차별이나 부당한 대우에 더 예민한 여자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더 괴로워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출까지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2.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자청소년들은 교육의 양적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성차별을 훨씬 적게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 측면이나 교육에 대한 열망을 키우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남녀간 격차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이나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 진학률에서는 남학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격차는 석사 이상 대학원에서는 훨씬 더 벌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43.0%로 남성 57.0%에 비해 적은 숫자였으며,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불과 26.0%로 남성의

74.%에 비해 약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했다(통계청, 2006b). 학력 인플레이 현상과 함께 여성이 과거에 비해 대학에는 훨씬 더 많이 진학하고 성별 격차가 매우 적지만, 대학원 수준에서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여성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교육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결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학력 인플레이의 결과 대학까지는 여성들이 무난히 입학하지만,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따는 데는 차등적인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교육에 있어서 받는 성차별은 사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생활시간 비교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학교수업 및 개인적 학습시간은 여학생이 7시간 15분으로 남학생의 7시간 6분보다 약간 긴 반면, 사교육시간은 남학생은 2시간 49분으로 여학생의 2시간 35분보다 약간 길게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2006b). 이는 아들의 경우 가족의 기대치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투자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서 과거처럼 딸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오빠의 학비를 벌던 시절에 행해지던 과도한 희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재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희망하는 정서와 성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에 있어서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은 비단 양적 측면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초하여 부모나 교사가 부여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 기대치와 함께 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태도를 경험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연계보다 인문계에 진학할 것이 더 기대되며, 대학의 전공 역시 전형적인 성역할과 잘 어울리는 전공으로 결정하도록 압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수업 내용에 있어서나 교과서의 구성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역할에 국한하여서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여자는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다”는 발언 등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같이 차별적인 교육 내용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의 불만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용돈 마련이다 (Arnett, 2000; Shanahan, 1996). 예전보다 높아진 십대들의 소비수준으로 소비 규모와 내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용돈을 벌거나 값이 나가는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택한 경우들이 많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도 있다(Call, 1996).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용돈이 부족해서'가 48.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가 25.3%여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참여는 부족한 용돈 마련이 가장 큰 목적임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048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36.1%의 응답자는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상, 2005b). 상당한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에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부당대우들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애초 일을 시작했던 계약했던 액수보다 일을 하고 나서 적게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서 일을 시켰으나 초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계약과는 달리 야근을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고도 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처음 약속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등 계약을 어기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또한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험을 하는 등 직업 환경의 안정성 문제도 발생하곤 한다. 뿐만 아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폭언 등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을 경험할 정도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2000).

여자청소년들은 남학생보다 일할 기회도 적으며, 임금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차별이 존재하는 노동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자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서비스와 관련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에 대

한 유혹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박창남, 2004). 뿐만 아니라 평범한 서비스 관련 일자리에서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위험마저 경험하고 있어서 남자청소년들보다도 더 열악한 성차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결정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목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장만하겠다는 기대도 갖는 등 희망적인 사고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심도 강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한경혜, 2000),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성격이 보수에 비해서 일이 힘들고 작업환경이나 계약조건이 열악한 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끔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권에 대해 잘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현실이 여자청소년에게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위험 가능성까지도 가미되어서 한층 더 불안정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여가에서의 성차별

선행연구들은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서 남녀간 양적 차이보다는 질적 차이가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가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여자청소년들은 여가 활동을 위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당구장이나 오락실 등 남자 위주의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는 여가 공간에는 출입하기 어렵다. 남자청소년의 여가 공간은 상당히 다양하고 넓게 펼쳐져 있으나 여자청소년들의 공간은 제한적이며, 여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향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2006b).

또한 여가 활동에 있어서는 스포츠 활동의 종류나 참여 여부가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다양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 동네 공터,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농구나 족구 등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남자청소년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장소에는 여학생들의 출입이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여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더욱 제한되기도 한다. 즉, 여가 시설이 없는 빈 공간의 사용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많은 공간들이 원래의 개발 의도와는 달리 남성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여학생들은 차별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과 희망 활동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남학생은 시간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한편, 여학생은 시설부족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제한적 상황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예상된 바와 같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도는 용돈액수와도 관련이 있는데, 남학생의 한달 평균 용돈이 38,230원인 것에 비해서 여학생은 35,990원으로 여학생의 용돈이 남학생 용돈에 비해 약간 적어서 여학생의 용돈에 대한 불만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조국남, 2005:185). 여학생들의 소비 패턴이 남학생에 비해 더 다양한 점을 감안한다면, 남학생보다 용돈이 더 적은 여학생들 중 상당수가 용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부모의 성차별적 태도로 인한 용돈의 차등적 지급, 성역할과 관련된 여가 활동의 제약, 남성위주의 공간 장악 등 가족과 사회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이 여학생의 여가의 질과 내용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여가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직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5. 소비 및 상품화 관련 성차별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4가지 주요 항목 분석에서 남학생은 외식·간식비, 오락비, 교통비, 문화비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외식·간식비, 교통비, 의류·신발, 학용품값 순서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오락비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의류나 신발 등 외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이재기, 2004:101).

이러한 소비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중시 풍토와 맞물려있

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아들은 다이어트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들까지 가세해서 딸은 성형수술을 시켜서라도 팔자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외모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갈수록 거세져서 이제는 딸은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대학입학 전인 청소년기에 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다.

딸은 예뻐져야 하며, 그래서 혼인시장에서의 상품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발상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가해지는 성 상품화 현상과 직결되어 있다. 성 상품화 현상은 여성 개인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일상에서의 대표적인 성차별적 관행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10대 여자청소년을 겨냥한 소비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화장품, 핸드폰에서 이르기까지 10대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소비를 조장하는 유혹적 광고들은 늘씬한 여성의 몸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걸친 값비싼 물건으로 개인의 품격이 높아지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화려함과 현실의 구차함 사이에서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최상의 손쉬운 방법으로 원조교제를 택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자신의 외모나 여성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나 보상을 얻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여자청소년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함께 여성성을 생존경쟁의 밑천으로 삼게끔 부추기는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적 사고나 성차별적 발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외모지상주의나 성 상품화와 관련된 성차별적 사고는 여자청소년의 다른 잠재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여자청소년들은 이미 원조교제나 가출상태에 있는 또래집단과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유사한 생활방식을 택하도록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또래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쉽게 경제적으로 운택해질 수 있다는 유혹에 친

구를 따라 가출을 하기도 하며,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파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도 한다. 즉, 상당수의 '잠재적 가출자'들이 일상을 통해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본화된 몸을 매개로 이성관계를 가지며 가출생활을 유지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민가영, 2001).

여자청소년들은 여자이기에 조신해야 하며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성정형화된 방향으로 역할 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원조교제 등 산재해 있는 유혹에도 가까이 접근해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은 유혹과 통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순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일단 원조교제나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이나 이성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6. 폭력 피해자로서의 여성

여자청소년들은 폭력을 당할 때에도 남학생에 비해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상당히 무방비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폭력과 관련해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시키는 대로 따름이 29.5%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은 무서워서 가만히 있음, 당당히 대항함, 도망침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시키는 대로 따름, 당당히 대항함, 도망침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후에 나타나는 태도변화에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45.6%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 및 휴학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7.0%로 가장 많았다(최덕경·강기정, 2001:97). 이와 같이 여학생들은 3분의 2 정도가 폭력을 당하더라도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시키는 대로 따르는 식으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으로써 피해여학생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며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청소년 비행이 남학생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남자청소년의 비행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자청소년들의 비행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과거와는 달리 여자청소년들이 가해자로 행동하는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여학생의 비행율도 결코 낮지 않다. 예를 들어 폭력비행에 속하는 패싸움, 돈을 빼앗아 본 경험의 비행행동은 여학생의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여학생의 폭력적 일탈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신혜섭, 2005). 하지만 남학생이 가해자일 경우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과는 달리 여학생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는 대부분 다른 여학생들이다. 따라서 가해 여학생들이 늘어난다는 점은 폭력 피해자로서의 여학생 수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주로 여자청소년의 비행이라고 여겨졌던 성 비행에 있어서도 지금은 남학생의 성비행이 여학생의 성비행보다 높다. 여자청소년들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피해를 주위에 발설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 반응이 두려워 그 일을 선불리 드러내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점이나 주변의 시선에 대해 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여자청소년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출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2.1%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가출 전에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근친상간이나 친척, 아버지 친구 등에 의해 당한 경우가 많았다. 가출 후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길에서 만난 아저씨들, 오빠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놀다가 여관방이나 으스스한 곳에 끌려가 당한 경우”들이 많았다(남미애, 1999:48).

IV.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여자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성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쉽게 파묻혀버리는 실정이다. 학생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하여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들이 특수하게 처해있는 환경이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청소년 전반의 문제로 치부되어 일괄적으로 처리해 온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문제는 자연히 간과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되지 못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고 남녀 청소년에게 동등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자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의 수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방향으로 여자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대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가족은 여자청소년들이 꿈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과연 가족은 이들이 기대하는 만큼 딸들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공평한 기관으로 작용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부장적 사고가 팽배해있는 한국 가족에서 딸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남아선호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가족이 아들딸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에게 공히 정의롭고 중립적인 조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적 사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에 팽배해있는 가부장적 사고를 줄이고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성 평등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서의 성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교육 및 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에 대한 교과 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는 성평등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새로운 부모교육 관련 강좌를 의무화하는 등 커리큘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가정에서는 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딸의 주체성이나 사회 진출 욕구를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성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여자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에게 전적으로 자녀문제를 맡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나 보살핌 기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여자청소년 전문 상담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가출에 대한 대책

첫째, 가출청소년들은 어린 시기에 집을 떠나기 시작한다. 첫 가출의 시기가 초등학교 때가 25.2%, 중학교 1학년 때가 20.7%, 중학교 2학년 때가 20.2%일 정도로 저연령층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김향초, 2002:111).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시급하게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종류나 학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학교에 양호실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문제가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각 학교는 상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상담 내용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출이 십대 소녀들의 성매매로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출이 지니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비행을 심화시키거나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문제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획일적인 것이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책은 단순한 보호나 귀가조치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가출청소년이 발견되면 이들이 학교나 가정으로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가출소녀들의 경우 가출소년에 비해 더욱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가한 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더욱 힘든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여자청소년들의 고민에 보다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전문가나 또래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소년 가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들이 문을 열고 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쉼터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단기 쉼터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쉼터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가출소녀가 일상생활에의 복귀가 용이할 정도로까지의 배려와 보살핌의 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십대 미혼모 대책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24%에서 2000년에는 63%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입양아의 90%가 미혼모의 아이일 정도로 미혼모의 연령이 낮고, 10대 학생 미혼모가 늘어나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도미향·정은미, 2001). 십대 미혼모들은 가출경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출경험이 일탈행동이나 성행동과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의 경험을 가진 미혼모가 29.1%로 나타남으로써 어렸을 때의 성폭행 경험이 미혼모가 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도 드러났다(배영미, 2001).

첫째,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의

상대는 애인이나 교제 중인 사람, 동거인 등으로 대부분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Wilson and Huntington, 2006). 하지만 십대들은 성 활동은 활발한데 비하여 피임 등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미혼모 중 상당한 비율이 피임 실패나 성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임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 모두를 상대로 십대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녀 출산의 의미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들이 자녀를 맡기면서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미혼모 대상 특수학교를 마련해서 저학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미혼모가 안심하고 자신의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가 당연히 되고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노동시장 대책

첫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이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속이는 등 이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여자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계약 시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에도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취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하는 곳은 유흥업소, 주유소나 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유흥업소에 취직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적기 때문이며, 청소년 측에서 볼 때는 쉽게 취업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곳의 취업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성적 착취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로 개발이 필요하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십대 여성들이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인지적 방향으로 진로정보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희망 여자 청소년에게는 진로개발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성매매 대책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청소년이나 중퇴청소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46.4%가 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1.8%가 학업 중이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생활비·용돈 마련이나 유행하는 물건 구입을 위해 성매매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장필화 외, 2002; 정규석 외, 2003에서 재인용). 즉, 청소년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왜곡된 성가치관의 결합이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며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신·낙태 혹은 성병으로 신체적 건강에 해를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성을 놀이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 성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멸감과 자기부정의 경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타인에 대한 불신감 등이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성매매 청소년은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게 되고 부모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의 성 가치관이 사회문화의 반영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성매매가 성매수자 및 대상 청소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왜곡

된 향락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윤락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연락방, 보도방 등에 대한 통제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조교제는 성매매와 달리 빈곤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동기가 단순하지 않으며, 보다 복합적인 산물이다. 원조교제는 중·상류층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다. 역기능적 가족, 부모의 갈등, 학교에 대한 거부감, 소비문화와 관련된 과시욕구와 또래문화에 의한 집단 의식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박상현·김중욱, 2000). 따라서 소비를 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합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의안을 교과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성의 이중규범 완화 대책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딸의 이성교제는 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10대의 임신은 어떤 경우에도 타당화될 수 없다고 다수의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 성적 탈선을 경험한 소녀들은 학교에 복귀하기를 원하더라도 공지에 물리게 된다. 또한 이들이 끊임없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하더라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첫째, 여자청소년에 대해 남자와는 상이한 잣대를 들이대고 윤리적 비판을 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중규범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적 차이의 윤리성에서 출발하여 십대여성의 독자적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이제까지의 십대여성 정책이 일탈적인 문제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앞으로의 십대 정책은 여자청소년을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는 집단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이들이 처해있는 위치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함께 역동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정착과 이탈이 빚고 있는 개별 여자청소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확일적인

윤리적 잣대에서 벗어나서 여자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들의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개선, 정체성 확립, 노동시장 참여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다중적이면서 통합적인 방안 모색을 제안하게 된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향락, 퇴폐 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시간적 제공은 축소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부족으로 인한 박탈감, 빈곤감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자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이나 성차별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은 묵살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마음껏 자기 문화를 가꾸어나가도록 그 여건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통계연보』.
- 김기현, 2006a, “가족보다 친구가 좋다(?),” 『새교육』(2006. 7), 한국교육신문사.
- _____, 2006b, “매일 2시간 42분 사교육에 투자,” 『새교육』(2006. 5), 한국교육신문사.
- 김지영·김기범, 2000, “청소년 매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심리학연구』 제20권 2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김향초, 2002, “미국의 가출청소년 서비스기관에 대한 연구,” 『협성논총』 제14집, 협성대학교.
- 남미애, 1999, “여성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원방안,”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제10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도미향·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도현심, 2003,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문화,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 『인간생활연구소 논집』2호,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 문성호, 2003, “학생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0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 민가영, 2001, “소녀들의 가출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일시, 도피적 가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상현·김종욱, 2000, “원조교제 10대의 새로운 아르바이트,” 『청람』 제16호 (2000. 7), 경찰대학.
- 박창남, 2004, 청소년노동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2000,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연구』, 서울특별시.

- 신선미, 2005, “여성 청소년 진로개발에 관한 이슈와 청소년 정책,” 『청소년 문화포럼』통권11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7집 2호, 한국가족학회.
- 양정호, 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 화선허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4, 4),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경상, 2005a, “장래 희망직업 선택 경향 및 특성,”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 _____, 2006b, “청소년의 여가참여 실태 및 특성,” 『새교육』, (2006. 2), 한국교육신문사.
- 이재기, 2004,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태 및 경제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지·박석돈, 2003, “가출 여성 청소년들의 삶과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3호(2003. 1), 한국청소년학회.
- 이희우, 2005,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고민은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 문화포럼』 통권11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정규석·조정자·유순화, 2003,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다체계 모델 검증,” 『청소년학연구』제10권 제3호(2003. 1), 한국청소년학회.
- 조국남, 2005, “청소년 여가활동의 실태 및 시설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백서』.
- 최덕경·강기정, 2001,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안성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최윤진, 2002, “사회변화와 청소년 문화 탐구-하위문화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탐구로서의 청소년 문화 탐구, 『청소년문화포럼』 통권 6호, 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_____, 2004, 『2004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_____. 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 _____. 2006a, "2006 청소년 통계." (5월에 발표)
- _____. 2006b,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경혜, 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Arnett, J.J. 2000, "High Hopes in a Grim World," *Youth and Society*, Vol. 31, no. 3, pp. 267-286.
- Call, K.T. 1996, "Adolescent Work as an Arena of Comfort Under Conditions of Family Discomfort in Mortimer, J.T. and Finch M.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n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29-166. Thousand Oaks: Sage.
- Hetherington, E.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1-14.
- Janus, M.D., Cormack, A.M., Burgess, A.W., and Hartman, C.C. 1987, *Adolescent Runaways: Cause and Consequence*.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Miles S. 2000, *Youth Lifestyles in a Changing Worl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Shanahan, M.J., Elder Jr. G.H., Burchinal, M. and Conger, R.D., 1996, "Adolescent Earnings and Relationships with Parents," in Mortimer, J.T. and Finch M.D.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n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pp. 167-190. Thousand Oaks: Sage.
- Wilson, H. and A. Huntington, 2006, "Deviant Mothers: The Construction of Teenage Motherhood in Contemporary Discourse,"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5, no.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SUE PAPER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인 쇄 2006년 8월 30일

발 행 2006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 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대표 조춘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07-5(93330)
